월요광장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자박자박 봄비가 온종일 내렸다. 도서관 마당의 키 큰 생강나무도, 울타리를 껴안 은 키 낮은 개나리도, 까치발하듯 꽃대를 올린 수선화도 모두 아스라한 노란빛으로 젖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젖힌 다고 했는데, 도서관의 봄은 해맑은 아이 들의 웃음이 열어젖힌다. 후두둑 빗방울처 럼 몰려온 아이들, 무엇이 그리 좋은지 까 르르 웃는 저 웃음이야말로 봄이다.

비 오면 딱히 갈 데가 없어서, 날씨가 좋으면 나들이 삼아서, 때로는 혼자 조용 히 책을 읽고 싶어서, 대체로 두런두런한 사람들 기운이 그리워서, 뭐니 뭐니 해도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라서 도서관을 찾는다.

"우산이 없어요.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내껀 아니에요." 난감한 표정의 아이를 따라 신발장 앞까지 가본다. 수많은 우산 을 하나하나 들춰 봐도 자기 우산이 아니

도서관의 봄

다. 금도끼 은도끼의 산신령이 된 기분으 로 금우산을 건네주고 싶어진다. 이미 확 인한 터지만 바닥에 깔려 있을지 모르니 다시 찾아보자고 같이 우산들을 뒤졌다. "어떡하니, 우산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거 라도 쓰고 가야 하지 않을까? 비 맞지 말 고."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한 아이는 살 하나 부러진 우산을 들고 빗속 을 총총 걸어갔다.

며칠 전엔 5학년 여자아이가 엉엉 울면 서 데스크로 달려왔다. 어찌나 크게 우는 지 도서관 직원들도 모두 놀랐다. "벌한 테 쏘였어요. 엄마아아…." 이미 눈물범벅 이 된 아이는 엄청 놀란 상태다. 목덜미가 동그랗게 부어올랐다. 공원에서 놀다가 물렸단다. 말벌은 아니어서 일단 다행, 우 선 엄마랑 통화하게 번호를 불러 보라 하 고 상황을 알렸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더 크게 울었다. 일하는 엄마도 안절부절,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 다시 연락 을 하기로 했다. 땀에 젖은 머리를 고무줄 로 묶어주고 닭똥 같은 눈물을 닦아 주었 다. 물린 자리를 자꾸 만지면 안 된다고 일러주니 안정을 되찾았다. "벌들이 꽃을 알아보네. 네가 이렇게 예쁘니 말야." 농 담을 건네니 씨익 웃는다. 진정이 되었다 는 표시다. 같이 병원 갈까 했더니 걱정하 며 달려온 친구들이랑 다녀오겠다고 의 젓하게 떠났다.

어디 이뿐이랴. 맨발로 뛰어다니다 가 시 박혀서 빼 달라고 오고, 친구가 숨긴 신발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고, 잠깐 책 읽 고 있었는데 엄마가 사라졌다고 울고, 화 장실에서 뒤처리를 잘못해 씻겨 달라고 하고, 넘어져 상처 나면 소독약과 반창고 를 달라고 오고, 대나무숲에 남겨진 아기 고양이를 구해 달라고 뛰어온다. 물론, 읽 고 싶은 책이 있는데 서가 위치를 못 찾아 도와 달라고 말을 거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럴 때마다 생각한다. 놀라고 당황하 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겼 을 때 제일 먼저 손 내밀 곳이 있다는 것 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아이들의 비빌 언 덕과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면 어린이도 서관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 시시콜콜 한 요청들에 정신없이 답하면서 이제는 알 것 같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어 줄 누군 가라는 것을. 이미 잃어버린 우산을 같이 찾아봐 주고, 벌에 쏘이고 놀랐을 때 달래 주고, 배고픈 고양이를 같이 걱정해 주고, 날마다 고양이가 잘 지내는지 숨어서 지 켜봐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 로 곁을 내주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곁은 말하 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이 되지 못한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1073일, 죽음과 고통의 봄을 세 번이나 새로 마주하고서야 수면 위로 올라온 세 월호를 보니 눈물이 솟구친다. 목이 메어 말을 건넬 수가 없다. 숨죽이며 지켜보는 마음도 이러한데 저 바닷물을 다 마셔서 라도 아이를 구하고자 몸부림쳤던 가족 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말하지 못하던 것, 말하지 않은 것, 말 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경청이라고 배웠다. 건져 올려진 세 월호 앞에서 부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원한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 달 라고 말을 거는 순간 비로소 '남'은 '너'가 된다. 그러면 '나'는 너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다시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곁이 생겨나 면 편만 강요하는 사회를 이겨 내는 힘도 여기서 나올 것이다. 경청은 고통의 당사 자에게는 사회적 존재감을 돌려주는 것 이고, 한편으로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저항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세월호 3년상을 치른다. 무력함 에 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 곁 에 사람 곁에 사람' 꽃으로 피어 누구도 외 롭지 않다고 말해 주는 일일 것이다. 기억 의 숲에서 흘린 눈물이 연대와 책임 의식으 로 피어나도록 서로 기꺼이 돌봐 주는 일일 것이다. 바라봄, 돌봄, 들여다봄…. 그래서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는 봄이기를!

社 說

세월호 인양 성공 이제 진실도 건져 올려야

세월호가 인양 시도 사흘 만에 완전히 수면위로 올라왔다. 선체를 받치고 있 는 반잠수선도 어제 9m 높이까지 부양 했다. 이로써 세월호 인양은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앞으로 2~4일 동안 배수와 잔존유 처리를 마치면 세월호는 목포신 항으로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된다. 오는 28일 전후로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본격 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을 지켜본 유족과 국민 들은 인양 성공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실시간으로 인양 과정을 지켜 본 유족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또 다시 느끼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들 은 목포신항 이동 후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민도 SNS상을 통해 너무 늦었지 만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참사의 진실 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체 인양과 함께 진실도 함께 인양해 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면서도 사흘 이면 끝날 인양을 3년이나 걸린 데 대 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제 의혹을 푸는 방법은 철저한 진상 조사밖에 없다. 미수습자 수습이 우선이 겠지만 선체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것 만이 "의도적으로 인양을 늦추지 않았느 냐"는 의혹의 시선을 지우는 길이다.

다행히 국회와 유가족 대표들이 선 출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 을 앞두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을 거치면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선 체 수습 과정 점검은 물론 자료 제출 명 령, 고발 및 수사 요청 등 본격적인 활 동에 들어간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해산된 2기 특 조위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특조위에 강력한 기소권과 수사 권을 줘서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순자 씨 부부 자기들도 5·18 희생자라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 씨 의 자서전이 지난주 발간됐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의 이 자서전에 는 12·12 사태, 6·29 선언, 5·18 광주민 주화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 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서전에는 역사 적 평가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전두환·이순자 씨 부 부가 자기들도 5·18사태의 억울한 희 생자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선 기가 막 힐 따름이다. 자서전에는 이순자 씨가 1996년 재판 당시 한 스님에게 5·18 희 생자 224명의 영가천도(靈駕薦度·망 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 기도를 올 려달라고 하면서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내외도 5. 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이지만, 그런 명분이 그 큰 슬픔 앞에서 뭐 그리 중요 하겠나"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게다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신군부 의 강압으로 퇴진했다는 것과 관련해 서도 "오히려 최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후임이 돼 줄 것을 권유했다"며 "남편 이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권유를 받아 들이기로 한 것은 '당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도력을 갖춘 사람은 전 사 령관뿐'이라는 최 전 대통령 판단의 진 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생전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아무런 증 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이렇게 터무니없 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씨는 5·18 사건의 책임과 당시 발 포 명령자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책 전반에 걸쳐 단호 하게 부정했다. 문제는 12·12 쿠데타 의 주범이자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로 역사에 기록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내달 출간된다는 점이다. 권 력 찬탈 과정에 대해 또 어떤 역사 왜곡 을 자행할지 그들의 자서전 출간 소식 을 듣는 심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법조칼럼

약속, 계약, 법률



류봉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며칠 전 아들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 게 되었다. 아들을 밤에 겨우 재우고, 아 내와 나는 번갈아 밤을 새우며 아들의 체 온을 확인하며 물수건으로 아들의 몸을 닦아 열을 내리도록 하자고 약속했다. 아 내는 약속을 잘 지켰고 교대할 시간이 되 어 나를 깨웠는데, 나는 잠에서 깨지 못한 채 계속 잠을 잤다. 결국, 아내가 밤을 새 워 내가 할 몫까지 다 하고 말았다. 아침 이 되어서야 잠에서 깬 나는, 잠을 자지 못해 지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무척 미안하고 부끄 러웠다.

모두가 알다시피,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다. 도덕을 어기게 되면 윤리적 비난을 받게 되지만, 법을 어기게 되면 일정한 불 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에 바탕을 두어,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 한 최소한의 약속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 로 개인의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법률 영 역이 민사법이다. 또한, 특정한 금지행위 를 정해 두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벌을 부 과하는 법률 영역이 형사법이고, 그 외에 도 국가의 행정행위 등을 규율하는 행정 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다. 이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법률들은 우리가 선 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제정되고, 제정 · 공포된 이 후 좁게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 율하고 넓게는 국가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은 혼돈의 연속이다. 급기야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그 직후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 사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전 대통 령의 파면 결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이같이 혼란 상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법률을 잘 준수하지 아니 한 것'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일견 개인의 행동 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므로 다소 불편함 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법 을 지키지 아니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행 동만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한하지 않 은 사회에서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사회의 혼란만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법으로 개개인의 행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개개인의 자유와 권 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법이 되는 것이다.

약속과 계약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약속과 계약이 제 대로 이행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등 현실적

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모두 같을 수는 없어 이와 같은 점들이 계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 번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아 니 될 것이다. 약속과 계약이 지켜지지 아 니하면 그것을 체결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범위만 다를 뿐 법률이 지켜지지 아니한 경우 발 생되는 상황과 같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간단한 이 야기를 장황하게 풀어쓴 기분이 든다. 그 러나 언론을 통해 보이는 우리나라의 정 치·경제·사회적 혼란 상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혼란 상황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법을 조금만 더 잘 지켰더라 면'이같은 혼란 상황이 발생하였을까 하 는 생각이 든다. 동시에 법조인이기 이전 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부터 간단 한 약속, 계약과 법률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나부터 '약·계약·법 률'을 잘 지켜야, 판사로서 주어진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좀 더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다.

기 고

희망과 소통의 길, 개통 서둘러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희망이란 본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 과 같다.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 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루쉰의 '길'에 대한 명언이다. 루쉰의 말처럼 희망과 길 은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절로 생 겨나는 것이다. 걸으면 길이 되고 오랫동 안 걷지 않으면 길은 사라진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는 것처럼 아 무도 걷지 않으면 길이 생겨나지 않는 것 은 명확하다.

길은 새로운 세계로 걸어가는 것이다. 길은 소통의 수단이고 생명력이 있기 때 문에 사람과 사람의 발길을 트고 이어준 다. 우리는 길을 통해 다른 세계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접촉하는 세계에 의미 를 부여하며 공간과 세상에 대한 지배력

을 늘려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길에는 소통하는 삶의 지혜와 생명의 힘이 부족 하다.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을 중심 으로 하여 남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서축의 교통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뒤떨 어진 상황이다.

필자는 네팔에서 진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열 리는 대구 두류공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 서 광주와 대구는 5·18과 2·28운동이 어 려운 시기에 조국의 민주화의 촛불을 당 겼던 의거로 민주화의 연대성을 확인하 는 것과 함께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내륙철도 건설을 계기로 광주-대구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철 도건설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꾸려 광 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추동력을 확보 하면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특히, 양 시 의회는 광주~대구 동서내 륙철도 개설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역량 결집을 위해 의회 간 '합동토론회 정례적 개최'와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 를 도출하게 되었다.

현재 광주~대구간의 고속도로는 2015 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교통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동서화합의 가교 역할

을 하고 있지만 도로 하나만으론 지역 간 의 교류를 확대하기 어렵고 산업물동량 처리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국토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잇고 철도를 뚫어 동서 간 통행로를 다변화하 고 물리적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동서 물류 수송을 위해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서해 안 공업지대와 경북 내륙공업지대·동해 안 중공업지대까지 연계시켜 새로운 남 부연계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복 안에서 마련된 계획안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에서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예산이 단 한 푼 반영되지 않은 채 또다시 추가검 토 대상사업으로 남았다.

동서화합과 지역소통, 국토균형 발전 과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측면에서 광 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은 절실하다. 당 초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 창~고령~대구 달성(191.6km)을 단선 전철로 연결한다는 이 사업은 2016년부 터 2024년까지 9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우리의 염원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장차 이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 선·호남선·경전선·전라선 등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에 따라 영·호남의 인적·물 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서광주역에 서 경전선 기차에 올라 지리산 골짜기를 찾아 나섰다. 기찻길은 우리들에게 많은 추억의 보따리를 풀게 한다. 불빛이 듬성 듬성한 시골 마을과 한적한 들녘을 바라보 며 설레고 들떴던 야간열차에 대한 아련 함은 첫사랑의 느낌과도 비교될 만하다.

어둠에 깃든 창밖을 바라보며 좌석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상념에 젖어 들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설렘의 길, 배움의 길, 깨달음의 길이 있지만 빛고을 광주의 길에는 발전과 시민행복의 길이 있어야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아피아가 도와 같이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속히 개통되어 흥륭과 번영에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 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루쉰의 말처 럼 시민의 뜻이 모이고 달빛동맹이 결집 하면 광주~대구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 는 빠르게 생겨날 것이다. 광주~대구 내 륙철도는 동·서간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역과 문화가 왕성히 소통하는 국 토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길이 될 것이다.

無等鼓

최근 수개월 동안 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농단'이다. 평 소에는 잘 쓰지 않던 단어를 최순실 사 태로 인해 이제 초등생도 쓰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대선이 다가오면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 있으니 '벵땅'이라는 단어 다. 이 말은 약 50년 전인 1970년대 신 문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사 회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속어인 '삥땅'의 사전적 의미는 '타 인의 돈 가운데 일부

를 중간에서 가로채 는 행위'를 이른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

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조그만 돈을 빼낸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1970년 4월28일, YMCA에서 한국 노사문제연구협회 주최로 '버스 여차 장의 삥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당시 버스에는 요금을 받는 여성이 있 었는데, 이들을 '여차장'이라고 불렀 다. 이들은 월급이 워낙 적어 요금 중 일부를 빼내서(삥땅) 생계를 유지하는 게 일반화돼 있었다. 버스 회사들은 삥 땅한 돈을 찾기 위해 알몸 수색까지 하 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이로 인해 차장들이 수치심으로 자

살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이 같은 내용 (여차장 편지)이 심포지엄에서 공개돼 온 신문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이때 행 사 좌장격이었던 천주교 지학순 주교 와 연세대 교목실장 이계준 목사 등은 "큼직한 부패에 비하면 여차장의 삥땅 쯤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여차장들이 죄악감에 괴로워하고 있어, 장래 어머니가 될 그 들의 정신위생이 크게 염려될 뿐"이라 고 말하기도 했다.

삥땅

'삥땅'의 어원은 화 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름 '섰다'에 서 '삥'은 송학(솔), 즉

1자를 말한다. 이 '삥'을 가지면, 이른바 족보인 높은 패를 쥘 확률이 높다. 또 두 장이 똑같은 '땅'은 최고의 패다. 이 삥과 땅이 합해서 나온 말로 추정된다.

얼마 전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 위원장이 친박계를 향해 "권력을 중심 으로 삥땅 좀 쳐 볼까 하거나, 공천이나 자리를 받아 볼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라고 말했다. 그들을 과소평가한 것 같 다. 친박계 의원들이 삥땅 정도의 의도 만 갖고 있었다면 최순실에 의해 대통 령이나 국정이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 을 것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______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